

# 한편의 시에 얹힌 소설 열편

오정희 외 지음 「별이 비되어 내리는 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십대의 나이를 시인의 나이로 지칭하기를 좋아한다. 아마도 그것은 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생동력과 절제, 진취적인 힘, 그리고 고뇌로 뒤엎힌 무수한 낱말들,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심연. 사실 한 편의 시는 그 상징성과 압축성으로 인해서 그 시를 토대로 무한한 상상을 가능케 해주는 묘한 매력이다. 그래서 시 역시 일단 창조자인 시인의 손을 떠나면 그 시를 애송하는 사람의 몫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 편의 시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 주목된다.

한 편의 시에 얹힌 소설모음인 「별이 비되어 내리는 밤」이 그것으로 열편의 소설을, 그 소설이 모태로 하고 있는 시의 전문과 함께 엮어 기획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이제하의 시 '시인들'을 모태로 한 이제하의 「근조」, 조지훈의 '4·19의 거 영령 추모시'를 모태로 한 문순태의 「여름공원」, 김춘수의 '수란'을 모태로 한 윤후명의 「누란의 사랑」, 황지우의 '西風 앞에서'를 모태로 한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정호승의 '혼혈아에게'를 모태로 한 이순원의 「절망, 그 연습에서 연습으로」, 이태선의 '절레꽃'을 모태로 한 박상우의 「돌아오지 않는 시인을 위한 심야의 허밍코러스」 등 이미 발표되었던 작품들을 한데 모아 한 편의 시를 모태로 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살려낸 창작소설 모음이다.

따라서 시 한 편에 얹혀 있는 애절한 사랑이나 끝없는 그리움, 냉혹한 이별, 허무한 죽음 등 삶의 다양한 체험들이 이야기로 새롭게 전해

지는 감동을 준다. 시와 소설을 병행해서 맛보는 즐거움과 함께 느끼는 새로운 감동으로 인해 일단 기획소설이라는 새로운 시도는 성공한 듯이 보인다. 새로운 특성을 가진 편집이 기존의 작품들을 새롭게 포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한 작가의 단편 소설모음과는 달리 각각의 개성을 가진 여러 작가의 글이 한데 어우러져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맛을 한번에 비교해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점 역시 이 책이 갖는 장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작품들을 재출판함으로써 창작욕구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쯤 이렇게 묶인 책을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윤정심

관악구 신림동 494-31 · 회사원

## 「실록 친일파」

해방정국의 반민특위가 40년이 훨씬 지난 오늘 부활되었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 민족혼이 선다." 평생을 친일파 행적에 대한 추적과 고발에 바친 임종국 선생의 유고집에서 우리는 해방정국의 감동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이 책에는 한 사람의 외곬 인생이 풍기는 비장감을 넘어서 어떤 교훈이 담겨 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 저자는 해방이전까지 친일파들의 매국배족사를 엄격한 고증과 풍부한 일화들을 바탕으로 서술한다. 종교, 경제, 군사, 정치, 문화의 영역에

서 활개치던 친일 군사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 단죄된다. 제2부에서는 이들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도 얼마나 파렴치한 매국 행각을 벌였으며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돌변하였는가 하는 것이 폭로된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회의 좌표를 보다 냉정하게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

보통 지나간 사실들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그러려니'사관이다. 사실 우리 근현대사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직접 몸으로 겪어온 시대였다. 어렵고 힘든 역사시기를 통과해오면서 몸에 붙은 '개인적 보신(保身)주의'는 한편으로는 목숨을 이나마 부지하고 가정을 그나마 꾸려올 수 있던 良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불의와 부패의 물줄기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학교를 팽개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독약이기도 하였다.

두번째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하는 관점이다. 물론 지나간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는 축적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들이 '지나간 일'에서 왔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미래의 재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일한 타성에 빠져 있는 것은 역사에 대한 천박한 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역사적 평가가 무겁고 엄중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자 임종국 선생의 말을 가슴에 새겨 놓자. "역

사를 바로 잡아야 민족혼이 선다."

## 김영철

부산시 남구 광안3동 1065-8 · 상업

##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

며칠전 서울에 있는 아이한테서 책 한권이 들어있는 소포가 왔다. 서평을 써달라는 주문과 함께 서평이 무언지 잘 모르지만 '독후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 본다.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심각한 공해사범인지를 알게 해준 것이 이 책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많은 부분들이 대기와 하천, 그리고 해양과 토지생태계를 오염, 파괴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금할 수 없었다.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중 이런 대목이 마음에 든다. "소련의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다녀왔던 어느 기자는 달에서 바라보니 지구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더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 그탄식이 이제 우리의 코앞에도 와 있다.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하늘은 잿빛에 가깝고, 그 잿빛 하늘아래 사는 우리의 몸에서는 암세포와 각종 질환이 급증한다. 우리의 몸을 살리고, 한반도를 살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 방법들 중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특히 우리 주부들이 할 수 있는 50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 우편물을 반송시키는 일, 합성 세

#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1 춘계언론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5월 13일  
무료공개특강: 5월 13일  
수강대상: 고졸(예정자)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사를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사를 보배로  
껴야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제를 쓰지 않는 일, 수도꼭지에 절수 장치를 사는 일, 주방용품중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쓰는 일, 수도를 꼭꼭 잠그는 일, 올바른 조명을 하는 일 등이 당장부터 시행해야 하는 일로 생각된다. 일전에 폐놀식수오염상태로 부산지방에서는 큰 소동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약수터에서 매일 길러온 물을 식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덕분에 새벽 5시 약수터 앞에 장사진이 쳐지고 있다. 환경오염이 우리 생활에 이토록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 준 책에게 감사한다.

방금도 합성세제를 쓰던 편리함을 뒤로 한 채 물에 밀가루를 풀어 기름이 있는 그릇을 세척했다. 다소 불편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아빠의 건강,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김원희

부산시 북구 모라동 658-8 · 주부

### 「닭이나 달걀이나」

태양이 떠오르고 날이 밝으면 아침이 되고, 다시 붉은 해가 기울어 어둠이 깃들이면서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별이 따뜻해지면 땅 밑 어디에서 숨었다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게 대지는 초록으로 뒤덮이고 그것이 짙어지는가 하면 다시 땅 밑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계속해

서 땅위로 솟아나왔다가는 들어가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가 하면 또 한 생명이 죽음으로 없어지고... 사람 역시 이 행렬에서 제외되지 못한 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얼핏 보면 모든 현상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담박에 '왜?'라는 의문이 솟구친다. 왜? 어떻게? 무엇에서부터? 어디로?

사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한번쯤이라도 의문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서너살만 되어도 엉뚱하게 보이는 질문들로 어른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게 - 왜냐하면 그들로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 어린이들의 장기 중의 하나이니까. 이렇듯 존재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극히 상식적이고도 감상적인 궁금증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문이 풀려나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얽힌 채 막혀버리는 것은 아마도 과학이라는 학문의 어려움이 주는 공포와 제한된 상식으로 인해 더이상 말도 못 꺼낼 정도로 기가 죽어버리는 까닭에, 아예 잊고 사는 게 편하다는 일종의 편의주의에 편승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설명이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고자 하는 노력마저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엉뚱한 힘이 있다. 하연간 그건 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궁금함은 남는다. 과학으로 포장만 되면 그렇게 어려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일반인인 우리와 실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닭이나 달걀이나? - 한 회의론자의 생명의 기원 탐구」는 이러한 우리의 바램을 충족시켜준다. 저자인 로버트 사피로는 뉴욕대 화학교수이며 환경화학의 유전효과와 DNA연구의 권위자로서, 이 한편의 책으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과학적 연구결과를 흥미롭고도 다양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과학의 신비로운 문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과학자의 저술이니만치 전문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면서도 소설만큼이나 재미있게 꾸며져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즐거움을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 이명선

관악구 신림동 522-1 · 회사원

###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대학시절 가장 존경했던 시인 김지하 선생의 근영이 담긴 책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이 나는 한달음으로 책방을 찾았다. 그분의 강연을 몇 차례 들어본 바 있거니와 '오적' '앵적가' '누씨 물어' 등의 시, 담시들로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을 처음 얻게 되었던 아리송한 기억도 있었으며, 또한 변화무쌍한 그분의 행장에 대해서도 껍이나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한마디로 나는 김지하의 열렬한 팬인 것이다.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는 김지하 선생의 '최후 통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전히 자기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사실, 시를

쓴다는 것과 사회운동의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사뭇 다른 일이다. 특히 시인을 천직으로 여기시던 선생의 입장에서 이토록 강경하게, 목에 깎스한 사람처럼 힘주어 우리에게 자기의 주의주장('느낌'이 아니라)을 내놓는다는 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나의 눈과 온몸의 신경조직을 곤두서게 한 부분은 2부, '달높아 삼경에 뜻이 문득 열린다' 중에서 '개벽과 생명운동'이라는 강연 초록이었다. 선생의 사상적 기초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사회의 대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이르기까지 일목, 장황하게 풀어놓은 것이 꼭 대학시절 즐겨 읽던 '팜플렛' 류의 냄새를 풍긴다. 선생은 이 강연초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신다. "현재의 죽임의 문명에서 벗어나 살림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한 운동의 근본원리로서 향아설위, 삼경사상을 꼽을 수 있으며, 주부, 노동자, 농민, 학생운동, 문화운동, '더구나' 통일운동까지도 모두 살림의 새로운 운동, 즉 '생명운동'적 시각에서 벌여 나가야 한다"

이것이 선생의 강연 요지이다. 그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어찌 되었던 선생의 문제제기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더불어 침체된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 전반에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 모색 작업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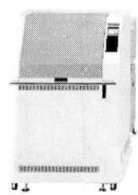
### 남연우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30-60 · 회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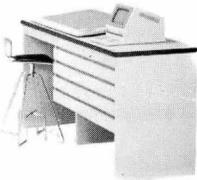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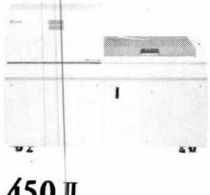
단색 SCANART 450 II - 국반절 Size 초스피드 실현

## “편집자의 창조력에 보답하는 製版시스템”

- 인공지능을 내장한 Hi-Tech제 판라인은 시간경쟁의 추종을 불허.
- 초고속 · 정밀도로 시간낭비와 인력소모를 배제합니다.
- 네거티브 가격으로 포시티브제판을 봉사해 드립니다.



450 II



30 II

※ 시간약속은 금,  
정밀은 신용!  
믿고 맡기십시오!!

- 국내 최대 Size (국반절) 입출력
- 고속스캐닝으로 대량 신속처리
- 멀티 디지털 씨스템으로 작업효율 향상
- 두꺼운 원고 자유자재 입력
- 토달편집 기능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

**우성사**

서울시 · 중구 충무로4가 56-1 (신도빌딩 2층)  
TEL: 272-2864 · FAX: 275-7016